"'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

고석규 목포대 명예교수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출간
시간과 역사의 여러 모습·조선의 역서와 시계들 조명

"'선수(先手)를 잡으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후수(後手)가 된다면 남에게 제압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차에 따라 지배국과 피지배국으로 나뉜다는 말이죠. 역사 속에서 시간이라는 '과학적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역사가에게 시간은 중요하다. 역사는 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사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던 고석규〈사진〉 목포대 명예교수. 제6대 목포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다른 무엇보다 시간에 관심이 많다. 구체적으로 '시간차의 서열화', '시간차 따라잡기'와 같은 시간의 배면에 드리워진 환경과 변화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한다.

고 교수는 오랫동안 '시간'에 천착했다. 일테면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역사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과학기술은 시간 측정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와 같은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에 빠져 있었다.

일반인과는 다른 역사 전공자로서 갖는 시간에 대한 의문은 책 읽기와 탐색으로 이어졌다. 최근 고 교수가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느낌이 있는 책)를 발간했다. 기자는 목포에서 거주하는 저자와 전화로 책 발간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눴다. 막힘이 없이 술술 풀어내는 시간에 대한 단상은 과학과 철학,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무엇보다 "시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0년 정도 됐다"는 말에서 신뢰가 느껴진다. 그러한 관심을 정리하고 글로 체계화하는 데는 줄잡아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E. H. 카의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정의는 역사란 결국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문제다.

"시간은 철학의 문제이며 동시에 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시간의 철학'과 '시간의 과학'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싶었죠."

물론 시간에 관해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터다. 모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고 답을 한다. 그러나 저자는 "혁명 중에서 가장 혁혁한 것은 시간 혁명"이라고 설명한다. 시간과 연계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계 시계의 발명"이었다는 것이다.

"기계시계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정확한 기계시계의 발명은 시간의 개념 자체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의 측정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생겨났죠. 그에 따른 사고의 변화는 근대적 사고, 합리적 사고로 나타났구요."

저자의 말은 문명비평가 루이스 멈포드가 "증기엔진이 아니라 시계가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기계"라고 말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산업혁명, 다시 말해 시간혁명을 계기로 인식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다.

'기계공학을 근거로 한 기계시계의 발명'으로 문명의 추가 유럽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후 유럽에서 아랍 술탄으로 시계와 시계공이 보내졌으며, 중국에서는 '과학을 통한 신앙의 전파'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저자는 "경학적인 틀에서는 천문적인 지식이나 수학적인 지식이 최고의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서양처럼 실물경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학적인 사고, 일테면 인성을 갖추고 사회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그쳤다고 부연한다.

이번 책은 크게 '시간과 역사의 여러 모습', '조선의 역서와 시계들'로 구성돼 있다. 전자에서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시간과 역사의 관계 등을 다뤘으며 후자에서는 조선시대 역법과 역서, 다양한 시계 발달의 역사를 조명했다. 또한 풍부한 사료와 도판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조선의 실정에 맞는 본국력 등 다양한 역법 그리고 자격루, 통천의 등 시계를 다룬 대목은 흥미롭다. "'자격'의 창조성과 경천근민의 정신"에서 시간의 중요성과 애민을 가늠할 수 있다.

책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시간차'를 선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로 압축된다. 저자는 "기술 발전의 내적 축적이 있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 정신,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대학 때 한국사를 전공했지만 송상용 교수의 과학사, 과학철학을 들으며 과학기술이 역사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사실을 접했다. 지금도 책상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호킹의 빅뱅이론 등을 다룬 다양한 과학책이 꽂혀 있다고 한다.

대학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그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창의성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에 적응할 수 없어요. 배울 수 있는 역량을 뒷받침하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지요. 또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어디에 있든 남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호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는 컬렉터의 애장품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세종 컬렉터 스토리-저 붉은 색깔이 변하기 전에'.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문 웅 전 호서대 교수였다.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그는 평생 모은 3000여 점의 미술품 중 오윤, 오지호, 배동신, 이응노, 박고석, 이대원, 우제길 작가 등의 작품 120 점을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등 미술계의 화제가 됐다.

그의 컬렉션이 주목을 받은 건 남다른 철학 때문이다. 방대한 컬렉션의 스케일도 놀랍지만 그 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번 손에 들어온 작품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철칙을 50년간 고수해온 것이다. 당연히 충동구매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원칙을 깬 작품이 있었다. 바로 한국 수채화의 거장인 여수 출신 고 배동신화백의 '자화상'이었다. 경매에 나온 배 화백의 자화상을 보자마자 "저 작품은 꼭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해 무려 31번의 응찰경쟁을 거듭한 끝에 시작가의 9배를 주고 손에 넣었다. 당초 계획보다 지출이 컸지만 그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며칠전 '배동신·양수아 100년의 유산'전이 열리고 있는 중외공원내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았다. 지난해 호남 서양화단의 거목인 배동신(1920-2008), 양수아(1920-1972)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전시회에는 이들의 대표작품들과 사진, 영상, 팜플렛 등 100여종의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이 선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배 화백의 '자화상'이었다. 그의 작품 앞에 서자, 문 컬렉터의 마음이 왜 흔들렸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헐렁한 셔츠에 깡마른 얼굴이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특히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사실적인 필치는 평생을 수채화에 몰두해온 거장의 치열한 열정을 보는 듯 했다. 순간, 오래 전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과 이중섭 화백의 '자화상'에서 느꼈던 뭉클한 감동이 되살아났다.

먹먹해진 마음을 애써 추스리며 미술관을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전보다 인적이 뜸했지만 중외공원에는 미술관을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는 이들이 유독 많았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풍경이지만 '그날'은 셀카족들의 소소한 일상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아마도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지속되면서 세상 속 '얼굴보기'가 멀어진 탓이리라.

'당신의 자화상'

그러고 보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얼굴을 진지하게 들여보는가, 궁금해진다. SNS 시대, '셀카'가 트렌드가 됐지만 정작 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예술인들이 '자화상'을 자주 그렸던 이유는 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어떤 얼굴로 한 해를 보낼지 한번쯤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새로운 '나만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거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NEIL: Tenet'

윤소정 '고요한 광기'전 19일까지 전남대 벼리플러스관

덕질과 팬아트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용어다.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중인 윤소정 작가도 마찬가지다. 영화나 게임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을 흠모해온 작가는 자신의 특기인 '그리기'를 통해 좋하는 것들을 표출해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윤 작가가 오는 19일까지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214호 벼리플러스관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고요한 광기-Silent Fanatic'(부제 '고요한 광신자')는 그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은 전시회가 됐다. 벼리플러스관은 문헌정보학과가 만들어가는 실험실이자 작은 도서관으로 이번 전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큐레이팅과 기획에 힘을 보탰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디자인 포스터 7점과 캔버스에 그린 작품 5점 등 모두 12점이다. 디지털로 제작된 콘텐츠를 물성을 지닌 유화로 옮겨보면서 미디어의 가상 인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눈길을 끈다. 게임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러시아부대 군인들을 패러디하고 HBO 드라마 'The Pacific'와 영화 '테넷'의 캐릭터를 소재로 삼기도 했다.

광주여고를 거쳐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윤 작가는 현재 동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유현호 감독의 독립영화 '보완물'의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했으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보고 의뢰를 받은 '2020 ubisoft사 Tom clancy Rainbow Six Siege - ProLeague 북미/캐나다 IGL' 초상화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려 화제가 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18일 개막공연

'흥겨운 국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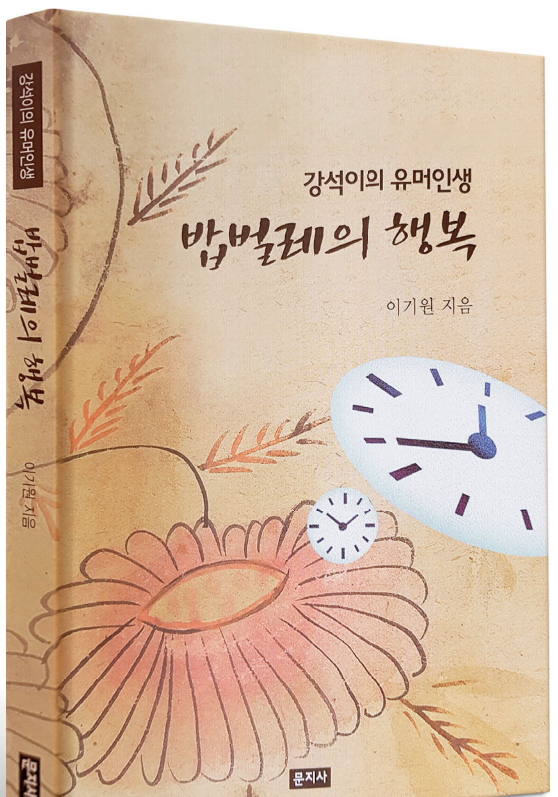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빛고을국악전수관이 2021년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공연을 시작한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공연은 매년 40여 회 공연을 무대에 올려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어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9회밖에 열지 못했다.

올해 상설 무대 개막 공연은 18일 오후 7시 열리며,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을 초청해 '여명(새날의 꿈)', '비나리', '쌍채북춤', '한량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사)풍류회 죽선방의 '사관풍류' 공연이 예정돼있으며, 3월4일에는 다스름 국악예술단이 전통춤 공연을 펼치는 등 올해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매회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선착순 70명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밥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 기 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